

“한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 광주가 희망”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강연

AI기술은 모든 산업 주력 기반
광주 주도적 역할 적극 지원
중기육성·인재양성 업무협약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0일 “광주의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공지능 산업 포럼’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육성의 희망은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에 달려있다”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인 슈퍼컴퓨터 설치가 관건인데, 광주가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육성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G7(선진국 클럽) 진입, 세계 패권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기술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주력기반이 될 것이다”면서 “국내 유수의 ICT기업들이 이미 거둔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AI 산업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이지만, 광주가 관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면서 “중기부는 ‘작은 것을 연결하는 큰 힘’이라는 모토에 맞춰 경쟁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 산업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있는 AI중소벤처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이제 농업·유통·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접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농업 등 1차 산업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명이 될 것이다”면서 “산업구조상 농도(農道)인 전남과 광주에 굉장히 유리한 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밖에 ▲토목·공학분야 엔지니어링의 스마트화 ▲내연기관 자동

차 스마트 공정 등에 광주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광주에 들어설 개방형 데이터센터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기업 유치도 활기를 띠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이를 위해 AI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광주는 민주화 성지이자, 대한민국의 철학을 만들어 준 곳이지

만 그동안 기술문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강연 후 광주시와 인공지능 분야 중소기업 육성·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광주지역 AI중소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지방중기청 등을 방문한 뒤 상경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친환경 저상버스 56대 추가 투입

교통 약자 이동 편의 확충...2022년까지 30% 운행 계획

광주시는 “올해 저상버스 56대를 추가로 도입해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확충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 27대, 압축천연가스(CNG) 23대, 수소 6대 등 모두 친환경 버스다. 저상버스 운행률은 21%에서 26%로 오르게 된다.

시는 2022년까지 30%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계단 대신 경사판 등을 사용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하다.

광주에서는 도로 여건 등으로 대형버스 운행이 어려운 간선 도로 3개 노선을 제외한 34개 노선에 216대의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중형 전기 저상버스 출시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에 12대 도입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지선 노

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무장애 정류소 88곳과 광주중합버스터미널 맞은편에 환승 거점 스마트 정류소도 설치·운영 중이다.

시는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입차 택시도 7월까지 40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전용차량은 116대, 입차택시 100대 등 모두 216대가 된다.

손동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는 저상버스 운행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전철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및 교통약자 전용차량, 입차택시의 운수종사자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바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재개

전남도, 영농철 가사부담 줄여...시·군 여건 감안 자율 추진

전남도가 ‘코로나 19 사태’로 중단한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면서 각 시·군이 영농 상황과 여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동급식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20명 이상이 급식가능한 마을이다. 급식시설과 조리 인력이 부족한 마을은 반찬 배달시스템을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 공동급식은 여성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여 영농에 집중하게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는데다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비해 50개 마을이 늘어난 1500개 마을을 올해 지원하고, 연

간 25일 이상 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최대 218만원까지 증액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비롯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및 식재료 보관·관리 철저 등을 준수토록 하고, 조리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번기 농사일과 함께 식사를 준비한 여성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14년부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부모의 자녀 차별’ 법으로 금지한다

잇따른 아동사망사고...법무부, 민법 ‘징계권 조항’ 개선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차별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현행 법률이 징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의 차별을 허용하는 뜻으로 오인되고,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바라보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훈육’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훈육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일단 명시하되 추후 가정 내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이마저도 삭제하라고 했다. 친권자의 권리·의무에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해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30일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 최대 150만원

다음 달부터 신속 지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사태로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방문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급한다.

노동부는 고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

해서는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일반 업종은 관련 법규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사 합의로 1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을 거쳐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노동부는 곧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외식·장보기 가장 많이 사용

행안부, 5월 사용현황 분석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장보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은 안경점과 병원·약국 등이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5조6763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용액이 큰 업종은 대

중음식점이다. 카드충전금 사용액의 24.8%에 해당하는 1조4042억원이 음식점에서 소비됐다. 마트·식품점에서 쓴 금액은 1조3772억원(22.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병원·약국에서도 5904억원(10.4%)이 사용됐다.

이밖에 주유 3049억원(5.4%), 의류·잡화 3003억원(5.4%), 편의점 2596억원(4.6%), 학원 2048억원(3.6%), 헬스·이미지 1796억원(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 규모별로 보면 카드 충전 형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의 64%인 3조6200억원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다. /연합뉴스

풍수·시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시: 2020. 6. 23(화) 오후7시
-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시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시: 2020. 6. 16(화) 오후7시
-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상: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갑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사원모집공고

당사는 도시디벨로퍼 자산개발(주)로써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내용

모집부문	고용형태	우 대 조 건
사무직(경력) 여 (나이제한 없음)	정규직	컴퓨터(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가능자

임금조건
근로기준법 준수(면담 후 결정)

모집기간
2020. 6. 11. ~ 17.(7일간)

제 출 처
SKC자산개발주식회사
광주 남구 노대동 853번지(농협건물 6층, 601호)
(본인 방문 접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참)

연 락 처
법무실 : 010-8602-0001

산행안내
6월17일(수)
▲광주청룡산악회 6월17일(수) 경 남 거창 우두산-의상봉 산행, 백운 로타리타이어뱅크 앞 07:30, 교직원 공제회관 07:40, 예술회관후문 07:50, 각화동 현대물류 앞 08:00 * 다음카페 광주청룡산악회 ☎ 010 8612 4504, 010 8612 3177
6월20일(토)
▲광주금당산악회 6월20일(토) 통일 한려수도 비전도 외산 선유봉, 봉선 동북대마트 앞 07:10 진월동식자재 마트 앞 07:20 염주체육관 07:30 한국 병원 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7월7일(화)
▲광주금당산악회 7월7일(화) 지리산 대원사계곡 생태탐방-광주가공과포레스트, 진월동식자재마트 앞 07:30 롯데백화점 앞 07:40 광주역 07:50 문예회관후문 08:00 각화시가지 입구 08:1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일침백약침술

침을 한번만 맞으면 백가지 약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불치통증, 각종암, 노약자 중풍마비, 정력감퇴

금침을 놓아 단 한 번 시도로 모든 병을 고치고 진짜 10년은 젊어지게 합니다.
010-8491-2060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방 차상민(510312-XXXXXX)
- 최후주소: 여주시 용촌면 여촌로 571
- 등락기준지: 여주시 용촌면 신평리 646번지

피상속인 방 차상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승천지원 2020-년256호로 신청하여 2020년 6월 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6월 11일
*상속인: 차창운(920408-XXXXXX) 여주시 소라면 달천2길 14
*신고기간: 2020. 6. 11. ~ 2020. 8. 20.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차창운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7-9600
광고문의 (062)227-9600
예향구독 (062)220-0551
(062)220-0550